

PEOPLE

2025년 4월 7일 월요일



광주본부세관 '4월 으뜸세관인' 선정 김현수·김지원·권소미 주무관

광주본부세관은 4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김현수 주무관, 김지원 주무관, 권소미 주무관을 선정, 포상했다고 6일 밝혔다.

김현수 주무관은 집중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 여행객을 검사 선별했고, 김지원 주무관과 권소미 주무관은 X-ray 판독으로 수화물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을 적발했다. 이들은 탁월한 팀워크를 통해 5.31kg (5억 3000만원 상당)의 마약 밀반입을 2회 연속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본부세관은 매일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서진건설, 함평 지역 발전 응원

고향사랑기부 2500만원 기탁

함평군은 ㈜서진건설이 고향사랑기부금 2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서진건설은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선진 기업"이라는 표어 아래 건설, 철강, 주택사업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레저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계열사를 경영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에 힘써왔다.

신명진 ㈜서진건설 회장은 "함평군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과 함께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의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신 서진건설 임직원께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준 기부금은 함평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광주 서부소방

화재 초기 대응 경비원 표창

광주 서부소방이 화재 현장에서 초기 대응에 나선 경비원들을 격려했다.

6일 서부소방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 서구 양동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초기대응에 나선 박종오, 박용식 등 경비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 1월22일 오전 12시6분 양동시장 내 점포 화재 당시, 박용식 경비원은 야간순찰 중 점포 내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소화를 시도했으며, 박종오 경비원은 119에 신고 후 소화기를 사용해 함께 소화활동을 도왔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경비원의 적절한 초기 소화 활동과 119신고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윤용성 기자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실패 두려워 말고 과감한 도전 나서야”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 소장, 변화 강조
‘열정과 통찰’ 주제 강연…경영자 ‘봉변’ 역설
시대 변화·흐름 인식…간절함·실행력 주문

“바야흐로 격변기입니다. 리더는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하며 변화해야 합니다.”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소 원장은 지난 3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열정과 통찰'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광호 원장은 "2024 파리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를 예시로 강의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오상욱 선수는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른 스타"라며 "최근 2년 연속으로 전국 체전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스타 선수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예선 첫 경기에서 무명의 선수에게 패해 탈락했다"며 "변화하지 않는 리더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봉변(逢變)’의 한자를 설명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봉변의 한자를 보면 만남 봉과 변화 변이다”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면 변화에 하고 경영자는 매일 봉변을 당해야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도 주문했다.

그는 “세상의 변화속도가 조직 내부의 변화 속도보다 빠르면 최후가 가까워진 것이다”며 “인간을 위협하는 것은 AI가 아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는 생존 수단이 돼야 한다. AI와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변화에 직접 부딪히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콤비마케팅연구원 원장이 지난 3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열정과 통찰'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또 경로의존, 무사안일, 축소지향, 분서갱유, 불통불화 등을 ‘을사오적’으로 꼽고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할 덕목이라고 역설했다.

‘경로의존’과 ‘불통불화’는 낡은 과거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분서갱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이에 걸맞는 공부의 필요성이다.

폭넓은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한 ‘축소지향’,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무사안일’ 역시 리더가 반드시 피해야 할 덕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골프와 경영’의 공통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목표를 정하고 역경에 도전하는 것이 골프와 기업 경영의 공통점”이라며 “골프는 날씨가 좋은날 하는 것이 아닌,

거센 바람과 추위 등 역경을 헤치며, 경쟁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미현, 신지에 선수는 작은 키 등 골프 선수로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스윙을 개발하는 등 수많은 땀을 흘렸고, 피겨여왕으로 불리는 김연아 선수도 멋진 점프를 보여주기 위해 수 천번 넘어졌다”며 “좋은 시절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간절히 원하고 실천할 때 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공통점을 가진 골프를 통해 경영자는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리더는 퇴보될 뿐이다”고 설명했다.

송대웅 기자 sdiw0918@gwangnam.co.kr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

목포·진도서 시작…감동·화합·안전축전 손뭉칠 들고 흥보

전남도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기원 시장·군수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대축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체육인의 화합과 건강한 체육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챌린지 첫 주자는 주 개최지 목포시(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와 게이트볼 경기가 열리는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맡았다. 이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시군 단체장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한

다. 감동·화합·안전 축전 흥보 문구가 적힌 손뭉칠 들고 릴레이 인증샷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유원호 도 관광체육국장은 “릴레이 챌린지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단순한 체육대회를 넘어 전 국민의 축제이자, 지역 상생의 장이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전 행사”라며 “많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OK! Now 전남, 활기 UP 생활체육!'이라는 목표로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전남도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주호남향우회 정기 임원회의'에서 지난 한 해 이어진 고향사랑 실천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2025년 변함없는 실천 의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제주호남향우회 “고향 전남 발전 지원, 적극 동참”

전남도는 최근 제주에서 열린 '제주호남향우회 정기 임원회의'에서 지난 한 해 이어진 고향사랑 실천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2025년 변함없는 실천 의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제주호남향우회 제26대 장정환 회장, 제25대 정찬식 회장과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고향사랑 실천 다짐 행사는 제25대 정찬식 회장의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헌액 증서' 전달,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을 통한 고향사랑 동참 선언, 고향사랑 응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정찬식 회장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기탁해 기부문화 확산, 서포터즈 가입 활성화, 출향 향우들의 교류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정 회장은 “고향을 떠나 제주에 사는 많은 향우가 고향사랑에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남 발

전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향우회 임원들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모집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들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및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출향 향우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전남도의 발전을 위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향우 참여가 더해질수록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2025년에도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출향도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187억 원을 모금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생체 릴레이챌린지에 참여한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

펼쳐진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1개 종목으로 나눠 경기를 펼친다. 2023년 전국(장애인) 체전과 2024년 전국소년(장



생체 릴레이챌린지에 참여한 김희수 진도군수.

애크) 체전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의 우수 관광·문화·산업·역사를 널리 알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규 기자

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 전남 동부 8개 특성화고와 협약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화합물반도체센터가 여수·순천·광양·고흥 등 동부남 지역 8개 특성화 고등학교와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4일까지 순차적으로 각 학교 및 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학교는 여수석유화학고, 여수정보과학고, 여수공업고, 여수해양과학고, 순천미래과학고, 순천효산고, 광양하이텍고, 고흥산업



과학고다. 목포대와 각 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 현장 중심 실습,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서구, 힐링음악회 '새봄' 개최 광주 서구 주민들이 5일 서구 광주천변 일원에서 '봄을 여는 소리, 희망의 울림으로' 주제로 열린 힐링음악회 '새봄'에서 심어게인2 우송자 김기태, 클레트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공연을 보여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서구